

## 청년 취업 활성화 위해 지속적 노력 고용유지 확신 통한 노사화합 이뤄



홍영식  
(주)필맥스 대표이사

지난 해부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일보와 기업은행은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2월 3일 중소기업 전문 무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월드(<http://www.ibkjob.co.kr>)를 오픈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 프로젝트에서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인 (주)필맥스가 잡월드 오픈 다음 날인 2월 4일, 대구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태동 씨를 채용, 잡월드 1호 커플이 되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주)필맥스 홍영식 대표이사를 만나, 경제 위기 속에서의 인력 채용 및 경영방침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최악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통해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잡월드 채용 1호'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주)필맥스는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청년 취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필맥스 홍영식 대표이사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는다”며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를 강조했다.

그동안 (주)필맥스는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적절한 인력'이 부족했던 경우를 종종 느껴왔지만, 우수 인력을 적기

에 채용하는 일도 어려웠을 뿐더러, 어렵게 채용한다 하더라도 '지방 근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고 회고하면서 "잡월드'를 통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또 '1호 채용'이라는 특별함을 얻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2006년 7월부터 (주)필맥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홍영식 사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과 중국 칭화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이수,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공기업의 CEO였던 홍사장이 민간기업, 그 가운데도 제조업체 CEO를 맡게 된 것은 어느 누가 판단할 때도 특별한 경력일 터.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처음에는 재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종업원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CEO가 될 때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필맥스는 2003년 6월 매각설, 부도설로 술렁이던 서통 필름사업부를 분사해 (주)필맥스로 상호를 정하고 당시 회사 임직원들이 1인당 2,0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출자해 살려낸 회사이다. 홍영식 사장은 "직원들에게 서통을 인수했던 때와 같은 아픔을 두 번 다시는 주지 말자는 다짐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홍 사장의 임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노사 화합으로 전해져, 올해 1월에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노사정 대타협식에서 '고용 안정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 1천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을 회사와 CEO에 위임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인력을 줄

이려 하지 말고, 고충분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밝히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 신뢰'가 아닐까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노사 화합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입사원까지 채용할 수 있었을 터.

홍영식 사장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주력하는 부분도 남다르다.

"커리어(career)도 중요하지만 성실성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 융화될 수 있는 '인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올해 필맥스는 950억원 매출에 40억 이익을 목표로 전임직원들이 노력하는 한편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기업 등록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포장협회 역시, '청년취업 1만명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협회 회원사들의 올해 인력채용 계획을 조사, 잡월드를 통해 향후 포장인력 채용과 상시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홍영식 대표이사는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들의 잡월드 동참을 환영하면서, "잡월드를 통해 인력채용을 하면, 기업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취업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규인력채용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주)필맥스와 홍영식 대표이사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